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러시’

김영우 당선인, 도덕성 전문성 당기여도 갖춰야 예비후보 2명 등록 자천타전 거론인사 15명선

6월4일에 치러질 포천시시장 보궐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는 4월18일 현재 서장원 전 포천군의회 의장과 이문용 전 재경포천시민회장 등 2명이다. 또 17일 고조흥 국회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이밖에도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차상구 공인회계사와 박용구 뉴라이트 포천연합 상임대표, 이상만 국회의원 보좌관, 양호식 법무사, 이우형 경기도의원, 이강림 포천시의회위원장, 정병학 전 포천시청 국장 등 자천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5명선에 이른다. 이들 예비후보군은 서장원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이중에서 정당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도 보궐선거에 출마의 뜻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3명이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을 감안하면 5명 혹은 6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한나라당 공천심사는 예년과 달리 중앙당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오는 4월25일경에 구성되고 5월 초순경에 최종 공천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 입장**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은 4월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들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천기준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우 당선인은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낼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하고 당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친박연대 비례대표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는 도덕성을 가장 큰 기준으로 보고있다”면서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돈 안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선출되는 포천시장은 나와 후배가 잘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공천도만 가지고 시장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할만한 사람이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자천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5명선에 이른다. 이들 예비후보는 대부분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18일 한나라당 예비후보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공천기준을 설명했다.

되어야 한다. 기여도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예비후보들을 향해 “당에 부담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치인생을 평가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당과 지역발전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만나지 않을 것이고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포천과 연천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 정책투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조흥 국회의원과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김영우 당선인은 “고조흥 의원께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도움을 준 것은 고맙지만 달(공천 약속)은 없었다”면서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후보는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거론되어 온 오병익 전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오 전 도의원은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포천 미래

를 위해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당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그는 “용기 있는 퇴진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탈퇴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전 재경포천시민회장은 “고조흥 국회의원의 시장출마 선언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졌다”면서 “국회의원의 철학이 따로 있고 시장의 철학이 따로 있다. 4년후 국회의원에 안나온다는 기자회견이나 신문공고를 하면 고조흥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고조흥 국회의원의 포천시시장 출마에 대해 실망스러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조흥 국회의원 포천시시장 출마선언**
고조흥 국회의원은 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몇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 의원은 “4.9총선 공천과정에서 낙선된 후 대승적 차원에서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김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데 격식부분은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조흥 국회의원이 포천시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고 의원을 측근으로 분류되는 예비후보들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고 의원 보좌관인 이상만 예비후보와의 공천과 본선거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문용 예비후보 공식 출마선언**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⑤7

예산10% 절감 공직사회 ‘슬렁’

포천시 사업비와 경상경비 감축안 시행

정부가 예산 10% 절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사달되면서 포천시 공직사회가 슬렁이고 있다.

포천시는 분청소속 실과소별, 읍면 등에 자체적으로 예산 1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포천시는 3천500억원 예산중 감축대상인 1천억원 예산에서 1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포천시는 예산10%에 해당하는 1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나후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안정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포천시 관계자는 경상경비로 분류되는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사업추진 예비, 행사비 등을 모든 분야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충원하지 않고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까지 감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예산10%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린 시점은 아직 없다. 그러나 조만간 구체적인 예산감축 지침이 시달릴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예산감축은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당초 계획했던 조직개편을 보류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감축 지침이 시달리면 총액인건비 등을 감안해 조직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예산절감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감축이나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여야 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포천시의 경우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공직사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안정 사업, 지역나후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감축이나 인력축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인 것들이 많았다. 즉흥적인 결정은 결국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다른 예산을 감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예산10% 감축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재 포천시가 추진중인 사업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한 사업을 하기위해 예산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감축하는 것은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모 공직자는 “공무원들이 예산감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을 뿐 경제살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고,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산출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반응은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등 경상경비까지 줄일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상경비는 개발수요에 대한 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또 인력감축이나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여야 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포천시의 경우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공직사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안정 사업, 지역나후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감축이나 인력축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을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복직했던 이 사태를 사직하고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용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 했다.

이 자리에서 이문용 예비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직전까지 갔다가 공천장을 빼앗겼다”면서 “명예회복과 고향 포천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변함없는 맛 · 정성을 다해 만든 무봉리 토종 순대국

자연그대로의 맛과 향기 플로렌스 삼겹살 · 순두부



철판볶음



토종 순대모듬



찰순대

언제나 즐거운 플로렌스 삼겹살 순두부 전문점!

florence
Korean Restaurant 플로렌스

남경남 순두부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기"

- 삼겹살 : 8,000원
- 순두부정식 : 6,000원
- 두부삼합 : 20,000원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기를 옮겨놓았습니다.

- ▶ 국내 최초 삼겹살 레스토랑의 혁명!
 - ▶ 호텔급 샐러드(30여가지) 무한제공!
 - ▶ 대형연회석 완비
 - ▶ 셔틀버스 운행(10인 이상)
 - ▶ 샐러드바 PM. 5:30 Open
- ☎ 031-544-4492~3

무봉리 토종 순대국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031-877-9969
본 사 : 031-542-4466